

전남도 “포스코, 전남의 상생협력 요구 즉각 수용하라”

도의회-광양시-시의회-상의, 지역 확대 중단·상생발전 촉구 “포스코 주요 의사결정·대규모 지역협력 사업 포항 위주 진행”

전남도는 15일 광양시와 전남도의회, 광양 시의회, 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포스코는 경영이념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도록 광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와 이들 기관은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는 전남도와 광양시에 대한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 지주사 전환 결정 과정에서 광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사회는 포스코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무시됐다”며 “지역민이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심한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광양제철소가 시설 규모나 조강생산량 측면에서 포항에 앞섰지만 포스코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대규모 지역협력 사업은 포항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며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란 포스코 경영이념에 걸

맞게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하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포스코와 (주)포스코케미칼 본사의 광양 이전과 차후 신규법인 설립 시 본사 광양 설치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내 ‘수소·저탄소에너지 연구소’와 ‘이차전지 소재 연구소’ 광양 이전을 요구했다.

또 ▲기존 전남지역에 대한 5조 원 규모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이행과 이차전지 등 신사업 분야 투자 확대 ▲광양제철소 내 ‘구매팀’ 신설과 ‘지역업체 구매물량 목표제’ 실시 ▲“광양지역상생협력 협의회”에 (주)포스코홀딩스와 (주)포스코의 의무 참여 및 지역협력사업 적극 추진 등 5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포스코가 지난 1월 주주총회를 거쳐 지주사 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포스코 그룹 전체의 전반적 경영전략과 신규투자 등을 주도할 지주사 (주)포스코홀딩스의 본사를 서울



15일 오전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코의 지역상생협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로 결정했다 번복한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는 포항시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 2월 기존 결정을 뒤집어 (주)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의 본사 소재지를 모두 포항으로 변경하기로 포항시와 합의했다.

이런 과정에서 포항시를 비롯한 정치권의

포스코에 대한 경영간섭으로 전남지역 투자계획 등이 언제든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지역민의 희생과 도움을 기억하고 전남 및 광양 지역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일 출범식을 갖고 오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원 인력이 광산구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에게 전자 문진표 작성법을 안내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공군 제1전비 코로나19 방역 ‘연대’ 눈길...군 인력 20명 지원 ‘큰 도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하 제1전비)이 광산구 코로나19 방역 현황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제1전비 군 간부 20명의 자원봉사 군 인력은 지난 10일부터 광산구 선별진료소에 배치되어 개인 자카트 검사, 전자 문진표 작성법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기초 역학조사

를 통해 확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일까지 손을 보태고 있다.

덕분에 최근 하루 3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확진자 발생으로 힘겨워하던 방역 현장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업무과중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1전비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택기자

광주시, 토양오염 우려지역 100곳 실태조사 산단·공장지역 등 16개 지역서 중금속 등 분석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5개 자치구와 함께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3월부터 10월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산업단지,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등 16개 지역에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100곳에 대해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벤젠 등 일반항목 15

개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오염 원인자나 토지소유자에게 정밀조사를 명령하고, 정밀조사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명령과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조사에서는 폐기물 처리와 재

활용 관련 지역 1개 지점에서 아연이 토양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구청에서 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광염 시 산업폐수과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어렵고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선제 대응으로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남도장터,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로 우뚝 2년 연속 대상 수상...농어가 매출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인정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가 '2022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에 이어 '2022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차지하며,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남도장터는 코로나19로 소비체계가 현실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사회 추세와 고령층 온라인 소비 가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밥 수요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해

제품 판촉에 힘썼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대 매출액인 552억 원을 기록, 전년 매출액의 69%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입점 업체 수 1천663곳, 입점 상품 수 2만 6천171개, 회원 수 33만 3천 686명에 달해 농어가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도장터가 전국 최고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애용



한 고객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는 남도장터를 전문 경영인 중심으로 법인화해 소비주세에 적극 대처하고, 유통경로 다양화와 품질 향상, 체계적 고객관리 등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Inno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책임·공정·신뢰를 지향하는 슬로건입니다.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산 61-1
2. 분묘의 기수 4기
3. 개장 사유 : 토지의 효율적 사용(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남 담양군 무정면 무정로 409 오통군립 묘원
 - 안치기간과 방법 : 화장후 봉안시설 안치(10년) 10년 후 소멸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 후 3개월
7. 신고처
 - 연락처 : 010-2682-7080
8. 신고요령 : 매장지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및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자에게 신고
9. 기타사항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개장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22년 3월 16일
위 공고인 김 태 수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